

다 계획이 있었던 아카데미... 김새 찬 기자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



“실전은 기세야 기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다. 학력을 속이고 부잣집 과외교사가 된 기우(최우식)가 ‘제자’ 다혜(정지소)에게 시험 볼 때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이다. 지난해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년이 채 안 돼 세계 영화사를 뒤흔들었던 ‘기생충’에 딱 어울리는 대사다.

‘기생충’은 출발부터 기세가 강했다. 지난해 5월21일(현지시간) 칸영화제에서 세계 첫 상영되자마자 호평을 얻었다. 영화제가 끝나기도 전 192개국

에 판매됐다. 영화제 폐막일 열린 시상식에서 황금종려상(최고상)을 안았다. 한국 영화 최초였다. 2018년 일본 영화 ‘어느 가족’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에 이어 2번 연속 아시아 영화에 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넘었다. 이후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며 트로피 수를 늘렸다. 한국에서는 천만 관객을 모았다. 봉준호라는 브랜드에 황금종려상 수상 효과가 포개지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기생충’은 열기가 식어갈 무렵 북미시장에 상륙했다. 입소문 전략을 택했



다. 10월11일 3개 관에서만 개봉해 시장 반응을 살폈다. 황금종려상을 받고, 한국에서 흥행했다 해도 자막 있는 외국 영화 ‘기생충’의 인지도는 낮았다. 33개, 129개, 461개, 603개로 매주 상영관을 늘려가며 바닥을 다졌다. 봉 감독과 송강호 등 배우들이 수시로 북미 매체와 인터뷰하며 영화를 알렸다. ‘봉하이브’라는 열성적인 팬덤이 소셜미디어에서 ‘기생충’을 널리 알렸고,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 기정(박소담)이 노래한 ‘제시카송’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뉴욕영화평론가협회, 로스앤젤레스영화평론가협회, 시카고영화평론가협회 등에서 수상하며 할리우드 인사이드들 사이에서 영화 인지도를 높였다. “아카데미는 로컬”이라는 봉 감독의 말 등이 화제를 모으며 ‘기생충’에 대한 관심도가 늘었다.

1월 초만 해도 ‘기생충’이 할리우드의 벽을 넘을지는 의문이었다. 1월5일 제77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지만, 은근히 실망감을 자아냈다. 미국 언론들은 외국어영화상 수상을 기정사실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각본상 수상 가능성을 점쳤는데,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차지였다. 작품상과 감독상(샘 멘데스)을 차지한 ‘1917’의 부상이 심상치 않았다.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은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시상식 시즌’을 알리는 행사다. 이전까지 주요 작품으로 거론되지 않던 ‘1917’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후 ‘시상식 시즌’ 레이스를 주도했다. ‘기생충’이 기세에서 밀리는 모양새였다. 오스카 경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13일 오스카 후보작 발표명단에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반등 기회를 잡았다.

이후 이어지는 여러 시상식을 통해 ‘1917’과 ‘기생충’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1917’은 미국감독조합(DGA)상과 미국프로듀서조합(PGA)상에서 최고상인 감독상과 작품상을 각각 수상하며 레이스를 리드했다. 두 상을 수상한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가져간 경우가 많았다. 골든글로브상이 아카데미상 전초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할리우드에선 DGA상과 PGA상이 아카데미상 바로미터로 통한다. 아카데미상의 향배는 ‘1917’로 기울어는 듯했다. ‘기생충’의 반격이 시작

됐다. 미국배우조합(SAG)상에서 앙상블상을 수상했다. 외국영화로는 최초였다. 1999년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 이후 21년 만에 ‘기생충’이 외국 영화로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주목받았는데 수상까지 했으니 예사롭지 않은 징조였다. 송강호 이선균 이정은 등 ‘기생충’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자 SAG 회원 배우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혼치 않은 장면까지 연출됐다. 배우들은 아카데미상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서 회원 비중(15%)이 가장 크다. 배우들이 미는 영화라면 오스카에서 사고를 칠 만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기생충’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 영화 찾아 볼 거예요”

아카데미상 시상식 취재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2월7일 도착해 8일 오전 멀티플렉스 부에나비스타CGV를 찾았다. ‘기생충’에 대한 현지 반응이 궁금했고, 오스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였다. ‘기생충’을 보러 들어가기 전 관객과 보고 난 관객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기생충’을 4번

째 보러 왔다”는 봉 감독 마니아는 ‘기생충’의 수상을 열렬히 바랐다. 한국 영화는 난생처음 봤다는 관객은 경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한국 영화라면 챙겨 볼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어렴풋이 느껴지던 ‘기생충’ 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9일 시상식 날이 밝았다. 시상식장인 돌비극장 주변은 아침부터 길목 곳곳이 통제됐다. 주최 측이 정해놓은 동선을 겨우 찾아 기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기자들로 가득한 기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따라야 했다. 출입증을 지난해 11월까지 신청해야 했다. 기자실 안 촬영은 절대 불가였다. 전화 통화도 금지였다. 촬영하거나 통화하다 적발되면 휴대폰을 뺏기고 퇴실된다는 서약서에 사전 동의해야 했다. 복장규정 역시 까다로웠다. 반드시 어두운 색 정장에 보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어야 했다. 출입증을 찍어 소셜 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 역시 금지였다.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외하면 기자실 운영 수준은 92년 전통의 시상식다웠다. 기자실 정면에 기자회견 무대가 설

치돼 있고, 중앙에 기자회견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기자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하고 시상식장으로 돌아갔다. 기자들은 각자 자리에 있는 대형 번호판을 들어야 질문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 내용을 못 들었어도 무방했다. 질의응답 내용은 곧 문자로 옮겨져 종이로 인쇄한 후 별도 보관함에 수상 부문별로 비치했다. 한쪽에는 5명가량의 사서가 앉아 있기도 했다. 아카데미상 관련 기록에 대한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배우들의 레드카펫 행사 등 화려한 외형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해 보였다.

레드 카펫 행사를 거쳐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됐다. 대형 텔레비전 여러 대를 통해 시상식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현장을 그대로 전하는 별도 이어폰으로 시상식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첫 수상자는 배우 브래드 피트였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피트는 시상식 무대에서 내려간 후 10분쯤 뒤 기자실에 나타났다. 그는 질의응답이 끝난 후 돌아갔고, 시상식장에 앉은 그의 모습을 곧 다시 TV로 볼 수 있었다.

기자실 오지 않는 수상자 봉준호

시상식은 이어졌다. 네 번째 시상 부문은 각본상이었다. 봉 감독과 한진원 작가 이름이 호명됐다. 봉 감독과 한 작가가 기자실로 오기를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다섯 번째 수상자인 각색상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조조 래빗’)이 먼저 기자실을 찾았다. 한 두 명 순서는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시상식이 이어지고 수상자들이 차례대로 기자실을 들르는데 봉 감독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곧 발표될 장편국제영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기자실을 오가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봉 감독은 장편국제영화상을 받았다. 이제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 감독은 기자실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심상치 않았다. 거대한 사건의 전조가 느껴졌다. ‘조조 래빗’으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와이티티 감독은 기자실을 찾았는데, 봉 감독은 왜 안 올까. 의문은 쌓였다. 한국 동료 기자 몇몇과 의견을 교환했다. 다들 이상하다고 했다. 기자실 진행요원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 기자들만 어리둥절하고 있는 가운데 시상식은 이어졌고,

감독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봉 감독이었다. 모든 상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지만, 감독상은 남달랐다. 작품상 수상까지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기자실 안 해외 기자들도 술렁였다.

감독상을 수상하고도 봉 감독은 기자실에 오지 않았다. ‘작품상이구나.’ 느낌은 확신이 됐다. 결국 작품상은 아카데미상 역사 최초로 외국 영화 ‘기생충’ 차지였다. 해외 기자들도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영화 역사를 바꾼 수상 결과에 혼이 빠질 지경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 감독이 이곳으로 오냐”고 진행요원에게 물었다. “확실히(Obsviously)”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 받을 때마다 기자실을 들락거리면 오늘의 주인공이 빛을 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카데미상은 ‘기생충’의 역사적 대관식을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다.

기자회견 후 맞잡은 거장의 손

봉 감독은 곡산에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한진원 작가와 기자실에 나타났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실에

있던 한국 기자들은 바로 이동해야 했다. 아카데미상 취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왔으나 기자실 출입증을 얻지 못한 한국 기자들을 위한 별도 기자회견장이 마련돼 있었다. 차량으로 15분쯤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다. 시상식을 막 마친 돌비극장 주변은 교통대란이었다. 우버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다. 동료 기자 여럿이 동시에 우버 차량 서비스를 요청했다. 간신히 차를 타고 비벌리힐스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많은 한국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타면서 기자회견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그날의 주인공들이 나타났다. 상기된 얼굴들엔 기쁨이 넘쳐났다. 1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봉 감독과 곽 대표, 배우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황급히 빠져나갔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 봉 감독이 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다. 트로피를 들지 않은 손을 내밀었다. 짧은 순간 서로 손을 맞잡았다. 2006년 ‘괴물’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하면서 처음 만난 이후 10년 넘게 이런 자리에서 그를 만나왔다. 손을 맞



잡으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당분간 그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예감이 스쳤다. 한국 영화계 간판 감독에서 세계적인 대가로 발돋움한 그가 더 바빠질 테니까. 한국보다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테니까.

지난해 연말 3년 동안의 문화부장 생활을 마치고 영화전문기자로 인사발령이 난 후 봉 감독과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는 “2월 중순쯤은 되어

야 시간이 날 듯하니 그때쯤 다시 연락하자”고 했다. 봉 감독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으리라 예감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영화 역사를 바꿀 수상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국민적 영웅이 된 봉 감독은 외출을 쉬 못할 정도 유명세에 시달린다고 한다. ‘2월 연락’도 없던 일이 됐다. 그래도 기분 좋다. 그의 다음 작품을 빨리 보고 싶다. 🍷